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 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우범기 전주시장이 9일 전주시청 대회의실에서 2023년 신년 주요 업무계획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 운영방향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다.

강한 경제 전주 미래 청사진 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의 미래광역 도시 대전환, 혁신 성장 강한 경제, 글로벌 으뜸 문화산업, 일상 속 신바람 복지 전략사업 등을 기자회견을 통해 다시 한번 강조했다.

우범기 시장은 9일 2023년 신년 주요 업무계획 기자회견을 열고 강한 경제 전주의 미래 청사진 담은 도시·경제·문화·복지 등 4대 분야 16개 전략을 제시했다.

여기서 전주의 미래 발전을 위한 모든 기반 구축에 힘쓰고 주력사업 고도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는 등 전주의 대변혁 위한 포부를 밝혔다.

또한, 우 시장은 전주시의 컨트롤타워 부족으로 인한 전문성을 강조했다.

우범기 시장, 새해 전주시정 운영방향 발표 도시·경제·문화·복지 등 4대 분야 제시

이에 시는 혁신 성장과 강한 경제를 이끌 3대 주력산업(탄소·수소·드론) 고도화, 일자리 도시 조성, 지역 활력을 위한 민생경제 지원 강화, 전주형 미래농업 혁신 기반 조성의 4대 전략을 추진한다.

여기에 다양한 취업 지원 기반 추진, 경영안정화 자금 지원, 디지털경제 기반 강화사업을 추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성도 보였다

특히 이날 글로벌 문화도시 경쟁력 강화, 체류형 관광 거점도시 조성, 지역 문화유산 활용, 천년 역사 문화를 위한 민생경제 지원 강화, 전주형 미래농업 혁신 기반 조성의 4대 전략을 제시했다.

또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노인·장애·아동·여성 안심도시 구현, 지역 보건 의료체계 강화, 도시 생활환경 개선 등 복지 전략을 밝혔다.

우범기 시장이 전라도의 수도로 우뚝서기 위해 타 지역과 차별화된 미

래 전주 도시를 설계하고 풀이되고 있다.

우범기 시장의 대표적인 10대 프로젝트는 미래 발전을 위한 규제 혁신, 기업유치에 따른 산업기반 조성, 완주·전주 상생 협력 추진, 왕의 궁원 프로젝트 추진, 종합 경기장 MICE 복합단지 개발, 민간투자 관광산업 활성화, 역사권 개발, 전주천·삼천 통합 문화공간 조성, 차매 안심도시 구현, 시민 편의 확충 등을 담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2023년은 전주의 미래를 위해 제대로 된 변화를 이루는 전주의 위대한 도약을 위해 더 힘차게, 더 강하게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아영 기자

도내 청년 기회·성장 지원

도, 농협은행·현대이지웰·전북청년허브센터 등 5개 기관과 민선8기 청년 공약 '전북 청년 합성 패키지 사업' 추진 협약

전북도는 도내 청년들이 각 지역에 정착해 미래를 설계하고 꿈을 실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에 본격 나선다.

전북도는 9일 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은행사(농협, 전북, 하나), (주)현대이지웰, 전북청년허브센터 등 5개 기관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8기 청년 공약인 '전북 청년 합성(합계 성공) 패키지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관련사진 3면>

이번 협약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있는 전북 청년의 기회와 성장을 지원해 '함께 성공'을 위해 한 마음 한뜻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협약 주요 내용으로 전북도는 예산 지원 및 총괄관리로 안정적인 사업추진과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각 기관별 역할을 분담했다.

운영사인 (주)현대이지웰은 전북 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추진을 위한 사업 홈페이지, 제휴업체 및 포인트 관리 등을 맡았다.

은행사인 농협은행과 전북은행, 하나은행은 전북 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지급을 위해 카드발급, 사용금 지급, 금융서비스 제공(합인 혜택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기관인 전북청년허브센터는 청년의 구직활동 및 금융교육, 청년정책 정보제공 서비스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전북 청년 합성 패키지 사업은 모두 3개 사업으로, 도는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해 미래를 준비하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민선 8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전북 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은 취업 초기 청년 지원으로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2019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올해 사업량을 확대(2,500명→3,000명)에 재직 청년에게 1년간 최대 36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북형 청년 활력수당 사업은 미취업 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및 사회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2023년 신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직을 희망하는 청년

민선8기 전북도 공약 청년 합성 패키지 사업	
• 도내 청년 지역정착 지원	→ 재직청년에 1년동안 최대 360만원 지원
• 전북형 청년 활력수당	→ 구직 희망시 6개월간 최대 300만원씩 지원 역량강화 교육도 제공
• 전북청년 함께 두배 적금	→ 월 최대 10만원 납입시 지자체서 동일금 매칭 2년 만기시 500여만원 지원

(2,000명)에게 6개월 동안 최대 300만원씩 지원하며, 구직 역량강화 교육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전북청년 합계 두배적금 사업은 재직 청년(300명)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신규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년이 월 최대 10만원 납입시 지자체에서 동일 금액을 매칭, 2년 만기시 약 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재직 및 구직 청년들에게 수당을 제공하는 지자체는 전북도가 유일하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도내 청년들의 안정적 지역 정착과 경제적 자립을 통한 청년 생활안정 기반 조성 및 미래 도약이 기대된다.

김관영 도지사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글로벌 경제위기 등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청년들이 기회와 땅, 전북에서 꿈을 펼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청년의 정주여건과 복지증진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며 "올해 도정 사자성어인 '도전경성(挑戰竟成)'처럼 전북도와 청년이 함께 도전하고, 함께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8일 열리는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안내 설명회 시작계획을 이달 9일 알렸다.

입후보안내 설명회는 오는 13일부터 각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별로 마련·실시할 방침이다.

오는 설명회는, 13일 오후 2시 진안군위원회 회의실에서 시작으로 17일 무주군위원회 회의실, 18일 전주직

구·시·군별 조합장선거 입후보안내 설명회

전북선관위, 13일부터

진주위원회 회의실, 남원농협 고죽지점 회의실, 전주경제인주축협 김제지점 대회의실, 장수군위원회 회의실, 19일 옥산면합병센터 세미나실, 익산시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

수교육관 실내공연장, 도 위원회 회의실, 임실군위원회 회의실, 고창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극장, 부안읍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 27일 전주완산구위원회 회의실, 31일 순창군위원회 회의실, 2월 2일 정읍시위원회 회의실 순으로 마련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주요 선거일정, 후보자 등록 구비서류와 작성방법, 선거운동 방법과 각종 제한·금지행위 안내' 등 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들을 설명회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 조합장선거의 후보자 등록 기간은 2월 21일부터 22일까지이며, 선거운동 기간은 2월 23일부터 3월 7일까지 13일간이다. /김영태 기자

손 씻기·마스크 착용... 개인방역 수칙 준수해주세요.

시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의회

謹賀新年

올 한해,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 지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꿈과 희망을 여는 남원시의회!
남원시민의 행복을 약속합니다!

남원시의회
http://council.namwon.go.kr